



“한국인의 소박한 미의식이 드러나는 달항아리는 우윳빛의 광택을 지닌 작품으로 보면 볼수록 오묘한 빛을 자랑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하고, 소박하지만 촌스럽지 않죠.”

단정하고 소박한 달항아리

이태희 도예가는 백자를 기본으로 문양이 없는 소박하고 단아한 달항아리를 비롯해 인센스 홀더 같은 생활용품 자기를 제작하고 있다. 이 중 베스트셀러는 단연 달항아리다. 보름달을 닮은 달항아리는 순백색의 부드러운 곡선, 넉넉하고 꾸밈없는 형태를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도자기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대도 이 달항아리를 형상화하여 큰 사랑을 받았다. 무심한 듯 섬세하고, 단아한 듯 오묘한 아름다움은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다. “한국인의 소박한 미의식이 드러나는 달항아리는 우윳빛의 광택을 지닌 작품으로 보면 볼수록 오묘한 빛을 자랑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하고, 소박하지만 촌스럽지 않죠. 저는 달항아리 외에 개구리와 연잎을 활용한 차그릇과 오일 램프, 소·호랑이·토끼 등 십이지지로 이어지는 인센스 홀더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도예가가 전통 달항아리부터 현대 자기까지 다양한 도자기를 만드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이태희 도예가는 2021년 큰 상을 받게 됐다. 바로 ‘고양시 제1호 공예 명장’이라는 명예다.

고양특례시 ‘제1호 공예 명장’

고양시 공예 명장은 1차 서류, 2차 현장 심사, 3차 공예산업진흥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고양시 15년 이상 거주, 공예산업 분야 15년 이상 종사자를 자격 요건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재능을 가진 공예인에게 주는 상이다. “고양시 제1호 공예 명장이 되면서 오랜 세월 도자기라는 한 길을 걸어 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 들었고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현재 3호 공예 명장까지 배출되었는데 선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고양시에는 이천이나 여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도예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도예 공방을 찾아 도자기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홍보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이태희 도예가는 좀 더 쾌적하고 넓은 환경에서 작업하고자 공장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고양시 공예 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아내는 그동안 가정을 돌보느라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막내도 대학에 입학했으니, 아내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 역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울러 저희 도예가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고양시가 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